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립 기반 다진다

무주군, 9개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2026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촌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에게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1월에 지역 내 19개 농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신청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종 선

정된 9개 마을의 사무장 활동비를 보조하게 된다.

보조 비율은 8개 마을이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이며, 1개 마을은 군비 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은 마을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기반으로 체험행사 기획은 물론, 마을 홍보를 전담하고 도시민과 농촌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사무장 지원사업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에 든든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이러 "실제로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9개 마을에서 총 7만3,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8억4,500여만원을 벌어들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을들이 역량 있는 사무장을 중심으로 무주만의 특색 있는 농촌 관광 콘텐츠를 발굴·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내실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체험휴양마을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무장 활동비 지원 외에도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지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고원 미래농업 거점 조성 본격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총 사업비 200여 원 중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진안고원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은 생산·교육·정착이 연계된 스마트농업 기반을 지역 단위로 집적 조성하는 국가 핵심 농정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유입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사업을 신청한 이후, 올해 1월 대면 발표와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감도.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마령면 평지리 일원을 조성되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은 기반 조성 → 에너지 시설 구축 → 스마트팜 하우스 시설 구축 → 지원센터 건립 순으로 진행되는 데 앞서 진안군은 그동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과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구

축 사업에 잇따라 공모 선정되며 스마트농업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은 이들 선행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약 4.2ha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하우스 건축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임대가 연계된 원스톱 창업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진안형 미래농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농협 제55기 정기총회 개최

4일 장수농협 2층 회의실에서는 장수농협 55기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장수농협 대의원, 임직원,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군의회의장, 정현주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및 유관사회 단체장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2025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 자료로 장수농협 총 자산은 지난해보다 160억 증가된 4,500억으로 지난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지원기반을 확고히 하여 명실상부한 든든한 장수농협이 되어 있었다.

장수농협 김용준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사업추진을 위한 혼연일체 헌신을 다한 결과이며, 장수농협은 2025년 교육지원사업비로 약 17억원의

환원사업, 교육지원 등 조합원들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당기순손익 12억 6,100만원의 손익을 달성, 출자배당 5억 2,100만원과 사업이용람에 대한 이용고배당 2억 9,900만원을 배당했으며, 사업준비금 3억 2,800만원 및 법정적립에 4억 9,200만원이 적립됐다. 추가로 하나로마트 이용, 면세유이용, 사료이용에 대한 2억 2,200만원을 직접 환원해 총 18억원의 배당 및 적립, 환원을 실시했다.

김용준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변화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더욱 튼튼한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더욱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외이사로는 김학수(장수출신 법무사운영)씨가 당선됐다. 장수농협 발전과 장수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공이 있는 농산업정책과 김주희 팀장, 농산업정책과 이주환 주무관, 농업기술센터 박종택 팀장 등 19명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불철 산불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선제적 산불 대응체계 구축

장수군, 불철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 운영

장수군은 불철 산불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인 산림과를 중심으로 소방, 경찰, 산림항공관리소, 무주국유림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군청 산불종합상황실과 읍·면에 총 8개의 산불방재단을 설치하고 산림재난대응단·산불감시원 운영, 산불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또한 장수군은 산불 감시와 예방·진화를 위해 선별한 산불감시원 44명과 산림재난대응단 35명을 총동원해 주민밀집장소 방문 계도, 홍보물 배부,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 등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순찰을 실시해 사전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산불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추진해 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은 산림이 75%일 정도로 지역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불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오는 12월 산불방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공유하고 주민 대피와 관련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설맞이 농·특산물 파격 할인

진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품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진안점, 전주효성점)'에서 시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몰'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 품목 20%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또한 1인당 최대 90만 원 한도 내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 매장인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은 명절 직전인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할인이 나선다.

직매장별로 진안점은 인기 품목 10% 할인율, 전주효성점은 품목별 정액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각



직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사은 행사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2월 한 달간 진행되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20% 특별 할인(카드형 선할인 10% + 캐시백 10%)' 정책과 맞물려 있어, 실질적인 장바구니 물가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 '삼선회' 장학금 200만원 기탁

무주지역 자원봉사활동 단체인 '삼선회'가 4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

삼선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최은아 삼선회 회장은 "오늘 전달한 장학금이 무주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제24기

농업인대학 입학생 모집

장수군은 중장기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24기 농업인대학 입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사과(30명), 두릅(30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30명), 지속가능한 치유농업(30명) 등 4개 과정 총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은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월 2~3회의 이론교육과 현장 견학 및 실습을 병행해 11월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품목별 재배기술 전반을 비롯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설계 및 작목 선정, 생태정원 조성 및 운영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고 분야별 전문강사가 강의한다.

특히 올해 처음 편성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과정은 귀농인의 작목 선정부터 농지법 이해, 미생물 농업 활용 등 영농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장수군 농업인대학은 농업 관련 전문 분야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체 교육 시간 중 70% 이상 출석자에게 수료 자격이 주어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